

사설

역사문화기념관 상량식에 부처

대한불교조계종은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이기에 전에 한국불교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조계종의 행보는 한국불교 전체의 위상을 좌우한다. 8월 29일 상량식을 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역사문화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 조계사라는 공간의 역사성도 각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국불교 근현대사의 영육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1911년 사찰령을 통한 일제의 불교 침탈에 대응하여 1937년 조선불교 총본산이 설립된 곳이며,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서로 촉발된 불교 정책의 시발점이다. 또한 1994년과 1998년 조계종 분규를 겪으며 불교의 위상을 추락시킨 곳이기도 하다. 이에 조계종은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으로

이미지 쇄신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변화의 내용은 조급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대한 건교 권력의 이미지만 더할 뿐이다.

사실상 이 건물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대를 주저하게 하는 점이 있다. 기본 용도를 성보 박물관으로 설정하면서도 실제의 쓰임새는 총무원청사 기능에 맞춰진 것 같아서다. 지상 4층 전부가 총무원의 행정 공간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려의 핵심은 아니다. 한국불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역동적인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당부한다.

가을 수놓는 산사음악회

사람에서 열리는 산사음악회가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 것 같다. 여러 사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음악회는 문화를 매개로 사찰과 신도,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사찰 포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산사들이 기존의 벽과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대중과 지역주민을 향해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이런 일들을 통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짙은 산사라면 꼭 이런 방식으로 주민과 신도를 향해 열릴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산사들은 그런 성격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에, 풍광 좋은 자연 가운데 놓인 산사라는 특징을 가장 잘 살리는 포교의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산사 음악회는 가장 성공

적인 사찰의 문화행사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은 단지 산사에 그쳐서는 안될 일이다. 도심의 포교당에까지 이런 새로운 시도가 적극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사찰이 단순히 신도들만 모이는 법회의 장소로 그 역할이 한정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도시 속의 사찰이라면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의 마당, 필요한 정보와 물건을 교환하는 교류의 마당 등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열어야 한다. 대중, 특히 가까이 있는 지역주민과의 친화성을 향상시키는 일이 포교의 첫걸음이다. 사찰이 자연스럽게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찰이 살아나는 길이요, 불교가 융성하는 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해외입양인 200여명 한국 'U턴'

조계종, '뿌리내리기' 돕는다

추석·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9월 10~13일 공주 갑사서 첫행사

"한국으로 '돌아온' 해외 입양인이 200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한국에서 살고 있거나, 살고 싶어 하는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뿌리 내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단기적인 한국 방문이나 친부모 찾아주기 등 이른 바 '뿌리 찾기' 프로그램은 많았으나 장기 체류나 정착 의지를 가진 해외 입양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해외에 입양된 동포는 15만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5천 명 정도

가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장기체류비자(F4 VISAL)를 받아 장기 거주하는 입양인은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1~2년 동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다 다시 입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포교원은 해외 입양인 '뿌리 내리기' 프로그램의 첫 시도로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입양인 25명과 함께 9월 10~13일 공주 갑사에서 '뿌리 내리기, 우리 되기'를 실시한다. 문화관광

부 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한국의 추석문화와 불교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

스님들과 함께 송편 빚기·울놀이, 산사의 예절을 통한 한국의 예절 체험, 발우공양 등으로 진행되며 불교의 대표적 세계관인 연기설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삶과 연결된 질문 시간도 갖는다.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 올바른 인

생관 정립 혹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묵언하면서 산행하기, 참선, '인연'을 주제로 한 춤 명상(Dance Therapy) 등의 시간도 마련했다.

포교원 국제포교 담당 이고은 씨는 "한국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고자 하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자양분이 됐으면 한다"며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상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고자 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속적인 자리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인재양성산실 발원" 개원

불교아카데미 정보센터

교계 최초로 미디어 공간을 갖춘 전용교육공간인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 경영·정보교육센터가 개원했다.

8월 22일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7번지 매트로빌딩 3층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사회부장 미산 스님,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시민의 신문 이형모 사장 등 1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윤천수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불교아카데미 전용 교육 공간이 없어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개원식을 시작으로 불교적 가치를 펼쳐갈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승가노후복지문제 개선

법장스님, 기자와 간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승가 노후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포교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제차 강조했다.

법장 스님은 8월 26일 교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 포교를 강화하고, 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포교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또 "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확보를 위해 노후복지 여건과 승가교육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명우 기자

외국인수행자 禪체험 교육

조계종 교육원, 19~10월 2일 교과안거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비)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전 자광사에서 제2회 외국인 승려 교과안거인 '외국인 수행자 한국 선 체험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 승려 교과안거는 외국인 스님들의 한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행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된 제도. 외국인 기초선원에서 4년 동안 8만여 명이 이수하고 교과안거를 6만여 명이 이수해야 조계종의 정식 스님인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상봉 교육과정은 '조계종 승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예비승사미·사제(니) 200여명(98년 이전 수계자 포함)이 주 대상이지만 비구(니) 스님이나 이종종단 소속 외국인 스님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고대와 중세 선불교의 역사, 초발심자경문, 초기불교의 선 수행, 간화선 실천 및 지도, 한국불교의 특징, 대중생활 및 불교영어 해설, 한국 선사 소개, 예식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권형진 기자

신도용 한글 통일 법요집이 발간된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진명)은 한글화된 '신도용 통일 법요집'을 발간하기로 하고 8월 27일 실무자 간담회

를 가졌다. 조계종 출판사와 서울시내 주요 사찰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3개 사찰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신도용 한글통일법요집 발간

일차로 연말까지 49재용 의식집

를 가졌다. 조계종 출판사와 서울시내 주요 사찰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3개 사찰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많은 행해지고 있는 49재용 의식을 올해 말까지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글 통일 법요집을 진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포교연구실과 3개 사찰이 먼

문화재관람료 사찰회의

국립공원 입장료등 논의

조계종은 9월 3일 오후 1시 마곡사에서 문화재관람료사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69개 관람료사찰 관계자가 참석하는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안을 비롯해 문화재관람료 징수 면제 및 할인, 관람료 예치금 사용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다. 또 입기가

만료된 13명의 관람료사찰위원회 위원도 선출한다. 한명우 기자

동화사 승가대 해거스님

설법문안공모 대상 당선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이 <법회와 설법> 100호 발간을 기념해 승가대학 학인 대상 '설법 문안'을 공모한 결과, 대상인 포교원장상은 동화사 승가대학 사교반 해거 스님이, 금상과 은상은 각각 동화사 승가대학 치문반 원록 스님과 사립반 선의 스님이 받았다. 권형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10 교구 본사

은해사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가사불사

삼보에 귀의하옵고, 신도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千年名刹 팔공산 은해사에서는 불기2547년 개산 제1194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불사중에 으뜸공덕인 가사 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사는 스님들의 法衣로서 청정한 계율을 상징하며, 예를 올리고 수행정진과 중생교화시 수하는 법복입니다. 큰 복을 짓는 옷이라 하여 복전의(福田衣)라 하였으며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대웅전을 짓는 것과 같이 큰 공덕이 됩니다. 가사를 지어 스님들께 공양함은 공양 중에 최상의 공덕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스님 또는 지명하는 스님에게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 가사 1천벌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중 100벌은 북한스님들에게 보내드립니다. 모처럼 가사불사의 큰 복짓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동참 봉헌하시어, 승가에 대한 존경과 깨달음을 향한 정진으로 지혜와 복덕을 함께 쌓는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불사안내
 입 재: 3월 10일(음 2월 8일)
 봉 헌: 10월 4일(음 9월 9일 개산재일)
 접 수: 종무소 (054)335-3318~9
 팩스 (054)335-0293
 원주실 (054)335-5220

동참안내
 일반동참: 1구좌 5만원
 대가사: 1벌 30만원

온라인: 농 협 723084-51-013851 (예금주 은해사)
 우 체 국 700260-01-000897
 국민은행 638101-04-002325

※승금시에는 전화나 팩스로 종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